

# 윤지영 “좋은 가사는 배배 꼬지 않고 공감 쉬운 노랫말”

작년 10월, 파랑새 소재 앨범 ‘블루 버드’ 호평

“무조건 지키는 것, 가사는 꼭 앞서 부르며 써”

“곡을 쓸 때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DM(SNS 다이렉트 메시지)과 피드백을 통해 제 음악이 힘이 된다고 말씀 해주실 때, ‘음악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싱어송라이터 윤지영(24)의 음악을 들은 이들은 모두 고백한다. “위로를 받았다”고. 메인 데가 없는 순수한 눈에 비친 투명함을, 담백한 목소리로 풀어낸다.

이처럼 ‘청춘의 흔들리는 표상’이 그대로 드러나니, 10~20대가 지지한다. 데뷔곡 ‘꿈부터 ‘문득’, ‘우우우린’, ‘언젠가 너와 나’ 등을 차례로 듣고 있으면 ‘40대 아저씨’도 청춘을 떠올린다. 일체의 걸림이 없는 무장무예(無障無礙) 상태가 된다.

윤지영을 만나기 위해 찾은 흥대 인근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사무실 앞에, 그녀가 지난해 10월 발매한 앨범 ‘블루 버드’의 커버를 옮긴 현수막이 크게 펼쳐졌다. 윤지영은 “제 꿈이었다. 소속사에 현수막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고 수줍어했다.

“블루 버드’ 앨범은 언제부터 작업한 건가요? 첫 트랙 ‘네가 좋은 사람일 수는 없을까’부터 마지막 트랙 ‘토모토모’까지, 마치 파랑새를 찾는 이들에게 전하는 단편소설 같아요.”

“작년 초부터 앨범을 낼 때까지 계속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앨범 전체 내용이 (별기에 극작가 마테를링크의 동화극인) ‘파랑새’와 연관이 있어요. 지난해 초 어느 날 갑자기 하루가 벅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왜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었지’ 같은 생각이 들

었죠. 그러다 ‘문득’ 제가 너무 어리다 는 걸 깨달았어요. 어리니까 서툴렀고, 혼란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 과정이 곁에 파랑새를 두고도 찾는 (동화극) ‘파랑새’ 같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다 해결 지점에 이른 부분들이 앨범에 담겨 있어요.”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무엇인가요?”

“조금은 뻔뻔할 수도 있게 느껴졌으면 했어요. 거만하게 ‘어쩔 수 없었잖아’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었으니,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했죠.”

“솔직하고 담백하며 공감가는 가사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키는 것 중 하나가, 가사는 꼭 앞서 부르며 쓰는 거예요. 너무 꾸미게 될 거 같아, 제가 평소 쓰지 않는 낱은 가사에도 쓰지 않았고요.”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누구나 어릴 때 다니는 피아노 학원은 뺄게요. 중학교 때 싸이월드에서 파도타기로 다른 분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는데, 감정치마 ‘201’ 앨범을 듣게 됐어요. 노래를 쓰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고 충격을 받았죠. ‘뽕방거리’ (감정치마의 ‘좋아해줘’) 사운드를 그 때 처음 들었죠. 이후에 바로 집 근처(노원구)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재밌는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보통

큰 실용음악학원은 분야마다 잘 나눠져 있는데, 그곳은 개인 뮤지션 분의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그 분께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베이스도 배웠죠. 본인이 쓰신 곡들을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약 1년 동안 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돌아켜보니,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웃음)”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실용음악학원을 갔고, 자연스럽게 예고에 갔어요. 학교를 다니는 건 재미있었는데 입시를 준비하면서 음악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맹목적이다보니, 슬럼프에 빠졌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뒤 음악과는 전혀 상관 없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동기였던 (윤지영과 소속사가 같은 싱어송라이터) 민수 언니가 어느날 고민이 있다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랜 안 친했거든요.(웃음)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제 고민을 언니에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곡을 내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와줄 사람들에겐 전화를 해서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2018년 데뷔곡) ‘꿈’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이버 가수’가 아니냐는 우스개도 퍼졌 습니다. ‘문득’ (2018) 뮤직비디오, ‘부끄럽네’ (2020) 뮤직비디오 등처럼 크로마키(화면 합성 기술)를 사용한 가상 공간 배경의 영상도 많았어요.”

“‘문득’을 냈을 때부터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라이브를 위해 친구들을 구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처음엔 술마시면서 농담 삼아 ‘나 사이버 가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콘셉트가 됐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사이버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젊은 뮤지션들은 참 안타깝네요. 특히 지역 세처럼 한창 주목 받고 있을 때 콘서트, 축제 등을 통해 대중과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코

로나19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벨로주에서 작은 공연을 하고, 오프라인 무대에 서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무기력해진 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충격을 받았던 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임산부의 안타까운 사연과 이런 상황에서도 놀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위아래로 배치돼 있는 환경 때문이었어요.”

“2월6일 오후 8시 첫 온라인 콘서트인 카카오TV ‘어니더 플레이스 윤지영 - 웨이 이스 마이 블루 버드?’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공연에서도 그런 스크린(크로마키)을 쓸 예정이에요. ‘블루 버드’ 앨범에 맞춘 콘셉트로 셋리스트가 구성될 겁니다.”

“생각이 많아서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들을 거 같아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지는 않아요. 다만 어릴 때 일기를 꾸준히 썼고, 커서도 일기를 많이 쓰려고 해요. 당연히 요즘은 ‘파랑새’를 진짜 재밌게 읽고, (존 그리샴의)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를 편안하게 읽었어요. 지금은 기형도 시인의 시집, 현대시모음집을 읽고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치마, 오아시스, ‘더 나인틴 세븐티파이프(The 1975)’를 많이 들어요. 제가 소심하고 기력이 없는 ‘저혈질’인데(웃음), 음악도 그런 스타일을 들어나요.”

“좋은 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음악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가사는 배배 꼬지 않고 공감하기 쉬운 노랫말이요. 좋은 음악은... 최근 ‘음악의 힘’에 대해 느낀 적이 있어요. 최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민수 언니가 일본 뮤지션 호시노 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몸이 좋지 않았는데 밝은 에너지로 승화한 분이라고. 그 분 음악을 미친 듯이 정주행했는데 저도 힘이 나더라고 요.”

“코로나19가 진행돼 국내외에서 공연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또 팬들과 대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사이버펑크를 좋아해서, 홍콩에 가보고 싶어요. ‘부끄럽네’ 라이브 영상도 홍콩을 배경으로 한 적이 있어요. 팬들을 대면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겠지만 우선 ‘감사합니다’

‘다’요. 제가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하는 데 웃음 통해 보여지는 것과 음악으로 는 소통이 편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죠. 애매모호한 것도 음악을 통하면 전달이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나요?”

“진짜 오래 노래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를 축박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처럼, 어릴 때 하는 성공을 동경했거든요. 근데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 답답함이 덜어졌죠.”

## ‘온앤오프’, 엄정화·성시경·초아·윤박·녁살 출연

다음달 16일 오후 10시30분 첫방송



‘온앤오프’가 엄정화, 성시경, 초아, 윤박, 녀살의 출연 소식과 함께 더 솔직한 사적 다큐의 귀환을 예고했다. tvN 측은 ‘온앤오프’가 오는 2월 16일 오후 10시30분에 새 단장을 끝내고 시청자를 찾아간다고 19일 밝혔다.

“온앤오프는 바쁜 일상 속 사회적 나(ON)와 개인적 나(OFF)를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내는 ‘사적 다큐’ 예능이다.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스타들의 진솔하고 평범한 일상

과 속마음을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멀티 엔터테이너 엄정화가 기존 멤버 성시경과 함께 진행을 맡아 화제다. 엄정화는 지난 ‘온앤오프’에 출연해 꼭 찬 일상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엄정화가 고정 MC를 맡은 것은 데뷔 이래 처음이다.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매력과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며, 새로운 ‘온앤오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 밖에 초아와 윤박, 녀살이 합

류한다. 걸그룹 ‘AOA’ 출신 초아는 3년 만의 예능 출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윤박과 녀살은 지난해 ‘온앤오프’ 출연 당시 활약하며 웃음을 선사했다.

윤박은 첫 전세집 인테리어에 도전하다가 화장실에 갇히는 등 좌충우돌 발전 OFF 모습으로 화제가 됐고, 녀살은 머릿결을 관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상과 흥 넘치는 ON을 오가는 친근함을 보여주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공개된 티저도 눈길을 끈다. 스타들의 솔직한 일상 공개로 사랑받았던 ‘온앤오프’가 한층 더 솔직하고, 더 거침없고, 더 직접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예고했다.

연출을 맡은 신찬양 PD는 “작년에 약속드린대로 올해 ‘온앤오프’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어 기쁘다. 첫 방송부터 다양한 또 새로운 사적 멤버들이 자신의 솔직한 일상을 보여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정화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지혜와 경험이 있다. 새로이 찾아올 사적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공감해줄 MC로서의 모습이 기대된다”며 “윤박씨와 녀살씨도 작년에 이어 올해 함께하게 됐다. 누구보다 솔직하고 공감 능력 좋은 두 분이 합류하는 만큼, 웃음도 케미도 더 좋은 온앤오프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우·여우주연상은 누구?...제41회 청룡영화상 내달 9일 개최

SBS·네이버 TV 통해 생중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를 잠정 연기했던 청룡영화상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1회 청룡영화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을 늦췄다.

최우수 작품상은 ‘남매의 여름밤’, ‘남산의 부장들’, ‘소리도 없이’, ‘윤희에게’, ‘82년생 김지영’이 겨룬다. 감독상 후보에는 양우석(강철비2: 정상회담), 연상호(반도), 우민호(남산

의 부장들), 임대형(윤희에게), 흥원찬(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감독이, 신인 감독상 후보에는 김도영(82년생 김지영), 김초희(찬실이는 복도 많지), 윤단비(남매의 여름밤), 정진영(사라진 시간), 홍의정(소리도 없이)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남우 주연상 후보는 유아인(소리도 없이), 이병헌(남산의 부장들), 이정재(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정우성(강철비2: 정상회담), 황정민(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이며, 여우 주연상 후보에는 김희애(윤희에게), 라미란(정직한 후

보), 신민아(다비), 전도연(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정유미(82년생 김지영)가 올라 있다.

사무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객들의 직접 참여 대신 랜선 참여를 통해 관객들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상식은 2월9일 오후 9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며 SBS와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엑소 백현, 일본 첫 미니앨범 오늘 발매

사랑 테마로 한 R&B 기반 총 6곡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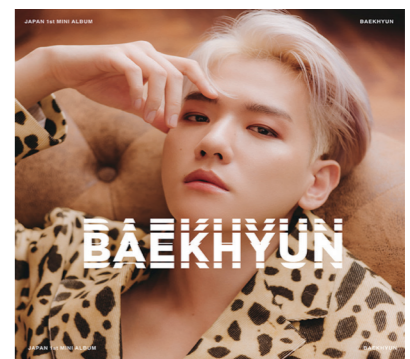
‘엑소’의 백현이 일본 첫 미니앨범 ‘백현(BAEKHYUN)’을 20일 공개한다.

1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백현은 일본 첫 미니앨범 ‘백현(BAEKHYUN)’을 20일 현지에서 음반 발매한다. 이와 동시에 이날 낮 12시에 플로,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사이트에서도 음원을 공개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갓 유 얼론(Get You Alone)’을 비롯해 사랑을 테마로 한 R&B 기반의 총 6곡이 수록돼 있다.

‘엑소’의 백현이 일본 첫 미니앨범 ‘백현(BAEKHYUN)’을 20일 공개한다. (Addicted), 사랑이 시작되는 느낌을 휘핑크림에 비유한 ‘휘핑(WHIPPIN)’, 성숙한 러브 스토리를 담은 ‘드로운(Drown)’, 사랑의 끝에서 느끼는 고독을 그린 ‘디스어피어드(Disappeared)’, 팬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팬송 ‘스타스(Stars)’까지 담겨 있다.

특히 타이틀곡 ‘갓 유 얼론’은 모든 것을 갖고 싶은 나쁜 남자를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으로, 지난 3일 성황리에 펼쳐진 백현의 첫 솔로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 - 백현 : 라이트(Beyond LIVE - BAEKHYUN :



LIGHT)’에서 최초 공개했다. 백현은 지난해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 ‘딜라이트(Delight)’로 그룹에 이어 솔로로서도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으며, 드라마 OST,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선보였다.